

조선어와 프랑스어에서의 격관계표현수단에 대한 대비

김 형 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힘들고 까다로와도 문법공부를 잘하여야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현시기 외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외국어의 문법적표현수단들과 수법들을 우리 말과의 대비속에서 깊이있게 인식시켜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을 외국어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와 프랑스어에서 격관계표현수단을 대비분석하려고 한다.

전통문법에서는 격범주를 대상적단어들이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가지는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형태들로 이루어진 문법적범주라고 하면서 대상을 명명하는 명사, 대상의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을 문맥 또는 장면관계를 통하여 나타내는 대명사들과 같은 단어들에 격범주가 설정되며 세계의 많은 언어들에 이러한 문법적범주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격범주는 일반적으로 문법적형태들로 이루어지므로 전치사 또는 후치사에 의하여 대상적단어들이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결합관계가 표현되는 언어들에서는 격범주가 설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격도에 의하여 격관계가 표현되며 격범주가 설정되는 조선어와 격관계가 전치사나 후치사에 의하여 표현되기때문에 격범주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프랑스어에서 격범주를 어떻게 대비분석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격문법에서는 문장에서 술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논다고 하면서 매개 진술구조는 바로 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며 진술은 일정한 의미문장론적관계들의 총체로 된다고 하였다.

격문법에서는 또한 술어와 관계되는 성분들, 술어와 련결되는 대상들을 그 술어의 론항(arguments)이라고 하며 론항들은 명사통합(명사구구조—groupe nominal) 또는 문장(부문, 절—proposition)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결국 문장은 술어와 그 지배를 받는 론항들의 총체로 볼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문장 = V_(동사술어) + GN_{1(명사통합1)} + GN_{2(명사통합2)} + ...

격문법에서는 술어와 그 론항들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문장론적관계를 격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전통문법에서의 격범주와 일련의 징표가 서로 류사하기때문이다.

일부 굴절어나 교착어들에는 격범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언어들에서의 격은 문장론적단위로서의 명사가 문장에서 노는 문장론적기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격이란 말은 격관계와 격형태를 다같이 지적하는 용어로서 격범주를 가지지 않는 언어(프랑스어, 영어 등)에서도 술어에 대한 명사적론항의 의미문장론적관계를 가리키기 위하여 《격》이란 용어를 확대하여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격은 모든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이므로 조선어와 프랑스어에서의 격관계표현수단들에 대하여 대비분석할수 있다.

언어들에서 격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수단들로는 일반적으로 위치, 전치사, 후치사, 굴절을 들수 있다.

여기에서 위치는 주어나 보어가 술어앞이나 술어뒤에 놓이는 관계를 말한다. 프랑스어의 경우 주어나 보어는 각각 그 특유한 위치로서 술어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차지하면서 격관계를 표현한다면 조선어에서는 둘 다 술어앞(또는 왼쪽)에 놓이므로 위치가 격관계표현수단으로 되지 않는다.

예: Marie cacha la lettre. 마리는 편지를 감추었다.

(주어) (보어) (주어) (보어)

술어왼쪽 술어오른쪽 술어왼쪽 술어왼쪽

조선어에서는 격도가 격관계표현의 기본수단이므로 위치는 격관계표현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격관계표현에서 위치가 기본역할을 한다.

프랑스어에서는 격관계가 문장의 주어나 보어의 위치에 의하여 표현될 때 위치를 바꾸어놓으면 격관계가 완전히 변하므로 주어와 보어의 자리교체는 불가능하다.

예: ① Pierre lisait un livre par jour.(피에르는 하루에 책 한권을 읽곤 하였다.)

* Un livre par jour lisait Pierre.

* Lisait Pierre un livre par jour.

② Pierre a acheté une voiture.(피에르는 승용차 한대를 샀다.)

* Une voiture a acheté Pierre.

* Pierre une voiture a acheté.

조선어의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도 문장에서 격관계는 변함이 없다.

예: 형이 동생을 도와준다.

동생을 형이 도와준다.

조선어에서도 격도가 쓰이지 않을 때 위치가 격관계표현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 형 동생 도와준다.

동생 형 도와준다.

프랑스어의 경우 전치사는 주어와 보어를 제외한 문장성분들의 격관계를 표현한다.

예 : Elle s'achemina vers la forêt.

(그 녀자는 숲속으로 갔다.)

우리 말과 같은 교착어들에서는 토나 후치사가 인디아-유럽언어들에서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보조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프랑스어에도 일부 전치사들은 후치사적으로 쓰이고있다.

예: J'ai marché trois heures durant. (나는 3시간동안을 걸었다.)

Vous êtes passé devant. (당신은 옆을 지났습니다.)

격관계표현에서 굴절이 보편적인것이 아닌 프랑스어에서는 일부 대명사들에만 라틴어의 잔재현상으로 굴절이 남아있을뿐이다.

예: Il y est arrivé. (그는 거기에 도착했다.)

On lui arracha la poupée. (그는 인형을 빼앗겼다.)

격관계와 격형태사이의 대응관계는 비대칭적인 대응관계이다. 즉 하나의 격형태가 여러가지 격관계를 나타낼수도 있고 같은 격관계도 여러개의 격형태들로 표시할수 있다.

례: Elle lui parle.

(그 녀자는 그에게 말하였다.)	} lui (굴절)	수신자격
Elle <u>lui</u> prend le bras.		
(그 녀자는 그의 팔을 잡았다.)		소유격
L'enveloppe contenait de l'argent.	주 어	장소격
(봉투는 돈을 포함하고있다.)		
Dans l'enveloppe, il y avait de l'argent.		

상황어 (봉투에는 돈이 들어있다.)

조선어와 프랑스어격관계표현수단에서의 차이를 밝힐뿐아니라 명사통합의 문장론적 기능(주어, 보어)과 격관계(또는 의미역)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한 합법칙성문제도 해명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어형성의 규칙(règles de formation du sujet)이다. 주어형성규칙은 심층구조(의미구조)와 표층구조(형태구조)사이의 련관과 그 이행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실례로 프랑스어동사 renfermer(포함하다)는 se trouver(…에 있다)와 달리 형태구조에서 두 동사에 공통되는 공간격관계를 주어로 내세운다.

례: Ce tiroir renferme des papiers importants.

(서랍안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

Des papiers importants se trouvent dans ce tiroir.

(서랍안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

주어형성의 규칙이 프랑스어에서는 많이 적용되지만 조선어에서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례: Ce musée abrite beaucoup de tableaux célèbres.

이 박물관에는 유명한 그림들이 많다.

La pluie a empêché Pierre de sortir.

비가 와서 뽀에르는 외출할수 없었다.

Cet arbre a des feuilles.

이 나무에는 잎이 많다.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것처럼 프랑스어에서는 장소와 원인이 다 주어로 표현되었지만 조선어에서는 상황어로 표현된다.

문장들의 성분들과 그 기초에 있는 의미문장론적관계사이에는 상대적인 의존관계가 있다. 즉 똑같은 기능이 각이하게 표현될수 있으며 똑같은 표현이 여러개의 의미격관계를 가질수 있다. 이로부터 추상적인 기저범주로서의 격관계를 그 관계의 형태적발현으로서의 격형태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다음의 두 문장에서 장소관계(Locatif)는 ①에서 문장의 직접보어로 실현되고 ②에서는 전치사통합(G Prép)으로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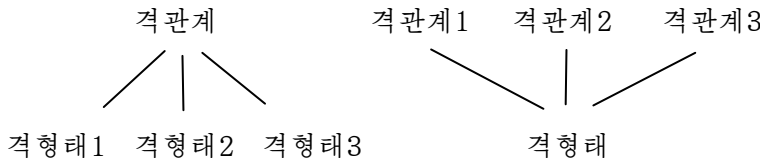
례: ① La route côtoie la rivière.

(도로는 강을 따라 나있다.)

② La route s'étend le long de la rivière.

(도로는 강을 따라 나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구조속에서 하나의 격관계를 식별확인할수 있으며 하나의 형태로 발현되는 현상에서 여러 격관계를 분별할수 있게 된다. 격관계(RC)와 격형태(FC)사이의 이러한 관계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줄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대응관계에 비추어보아 두 준위사이의 편차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구조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현상과 같은 구조가 서로 다른 격관계의 의미를 표현하는 현상들을 찾아볼수 있다.

례: - Il utilise un réchaud électrique pour préparer ses repas.(직접보어)

(그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기밥가마를 사용한다.)

- Il se sert d'un réchaud électrique pour préparer ses repas.(전치사통합)

(그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기밥가마를 사용한다.)

우의 두 문장은 서로 다른 격관계표현구조가 같은 격관계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며 아래의 두 문장은 프랑스어에서 형태구조가 동일하지만 단어의 어휘적의미에 따라 격관계의 의미가 다른 문장들이다.

례: - Il travaille la nuit.(시간격) (그는 밤에 일한다.)

- Il travaille la pâte.(대격) (그는 반죽을 만든다.)

이러저러한 격표식수단들의 선택은 언어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두 준위에서 나타나는 데 하나는 주어진 언어의 내부에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두 언어의 대비에서 나타난다.

프랑스어에서는 동사에 따라 장소격이 직접보어의 형태를 취하거나 전치사통합의 형태를 취한다.

례: ① Ils sont arrivés au sommet.(전치사통합)

② Ils ont atteint le sommet.(직접보어)

③ Il a été obligé de reconnaître son erreur.(직접보어)

④ Il a été obligé de convenir de son erreur.(전치사통합)

조선어의 여격의 형태가 프랑스어에서는 대격의 형태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례: 선생님에게 인사하다.(간접보어)

Il salue le professeur.(직접보어)

일련의 격관계들은 형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수 있으며 따라서 비명시적인것일수 있다.

프랑스어에서 전치사없는 직접지배의 통합들이 문장의 상황어로 될수 있는데 일련의 장소나 시간상황어들이 격관계표현수단을 가지지 않는다.

례: Le docteur fait ses visites le matin. (의사가 아침에 방문한다.)

Le matin, le docteur fait ses visites. (아침에 의사가 방문한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프랑스어에서 《le matin》은 격관계표현수단이 없이

임의의 위치에서 시간격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조선어에서는 《아침》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위격토 《에》가 붙어서 시간격의 의미를 나타낸다.

프랑스어에서 주어나 직접보어밖의 문장성분을 표식해주는 령련결수단은 자주 전치사와 교체되면서 쓰일수 있다.

례: Il habite la campagne. (그는 농촌에서 산다.)

Il habite à la campagne. (그는 농촌에서 산다.)

프랑스어에서 격관계표현수단인 전치사의 선택은 다음의 3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첫째로, 전치사는 어떤 주어진 격관계의 특수한 표식으로 쓰인다. par는 능력, de는 절대격의 표식이며 avec는 동반격을 표현한다.

둘째로, 전치사는 명사나 동사 등 다른 어휘적요소에 따라 선택된다. 프랑스어에서 일련의 동사 다음에 특이하게 전치사 à 또는 de(이외의 다른 전치사)가 쓰인다.

례: essayer de, chercher à + 미정형, relever de, ressortir à

셋째로, 전치사는 완전한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에 따라 선택된다. 실례로 장소나 시간관계를 표현하는 전치사들(devant, derrière, avant, après 등)을 들수 있다.

프랑스어에서 일부 전치사들은 명사의 앞에 놓이기도 하고 명사의 뒤에 놓이기도 하는데 뒤에 놓이는 경우는 후치사적표식수단으로 인정할수 있다.

례: Durant trois jours

Trois jours durant

일부 전치사들은 통합을 이루는 성분이 없이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후치사가 아니라 다만 명사가 명시되지 않았을뿐이다.

프랑스어명사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맺는 격관계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하지 않으나 조선어에서 명사는 격토에 의하여 변한다.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원리적으로 통속적으로 줄수 있게 교육리론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교육 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프랑스어격관계표현수단, 조선어격토